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것은 민족자주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방도

리 현 성

현시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민족자주의 사회주의이다.

민족자주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곧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념을 지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튼튼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며 그 실현방도의 하나는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민족적자존심을 가져야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민족의 자주성과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게 됩니다.》(《김정일전집》 제9권 100~101페이지)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것이 민족자주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결합되어있는것만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민족의 자주권이란 모든 문제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치적자결의 권리를 말한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다. 자주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독자적인 사회생활단위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고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자주권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응당한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누구에 의하여 선사되거나 지켜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자존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수 없고 민족의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우선 자기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에 맞게 자체로 판단하고 결심하며 처리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인민의 자주적권리이며 민족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민족이다. 다른 그 누가 결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대신하여 개척해줄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주인인 그 나라 인민 자신이 판단하고 결심하여 처리해나가야 한다.

자기 문제를 자체로 결정하고 처리하지 못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것이며 남의 압력과 간섭에 굴복하고 남의 의사를 따르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과 같은것은 다 민족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비굴한 행위이다.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체로 결심하고 관철해나가자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이 높으면 무슨 문제에서나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의사를 따르는것과 같은 일이 있을수 없다. 민족적자존심을 건드리는것을 참을수 없는 모욕으로 감수하며 남에게 자존심을 굽히는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는 사상감정이 없다면 자주성을 유린당해도 투쟁할수 없다. 자기 민족의 존엄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것도 민족적자존심에서 우러나오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것도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이다.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져야만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길로 드팀없이 걸어나갈수 있다.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또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대로 창조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대로 창조적으로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고수의 기본 요구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려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식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식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무슨 일이든지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하여 풀어나갈수 있다.

현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그것을 억누르려는 적대세력과 힘의 대결이고 사상과 의지의 대결이다.

적대세력들이 막대한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상적힘으로 단호히 맞서고 돈주머니를 흔들 때에는 제힘으로 살아갈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투지로 자기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것이 혁명하는 인민의 본때이다.

침략자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평화》니, 《원조》니 하며 떠들어도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수 없으며 또 그런 전례를 찾아볼수도 없다. 민족적자존심이 높은 인민에게는 남의 식이 통할수 없으며 적대세력들의 책동도 맥을 추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결사의 각오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남들이야 어떻든 오직 우리 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이 남달리

강하기때문이다.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있다.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것이 민족자주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방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민족성고수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필수적요구이기때문이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그것은 민족성이 없으면 민족으로서 영원히 존재할수 없으며 부강번영이 없이는 민족의 변함없는 자주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우선 민족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적극 살려나갈수 있다.

민족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매 인간이 자기 고유의 개성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듯이 매 민족은 다름아닌 자기의 고유한 생존방식과 민족성으로 하여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 한 민족이 존재한다는것은 곧 민족의 독자성, 민족성이 존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족성을 잃으면 민족성은 있어도 그 민족은 민족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할수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나라와 민족들의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매 나라와 민족들의 독자성과 개성적인 발전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족들의 보다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성이 사라지는것보다 더 엄중한 사태는 없다. 잃었던 령토는 다시 되찾을수 있지만 사라진 민족성은 다시 회복할수 없다. 한번 남에게 동화되게 되면 그 민족의 력사는 끝나게 되며 그 민족은 사멸되게 된다. 지난 시기 서방나라들이 저들의 식민지들에서 것처럼 악랄한 식민지동화정책을 실시한것도 바로 그것이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효과적인 방도였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생존과 발전을 직접적으로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세계화》책동에 말려들면 사회주의도 민족도 지킬수 없다는것은 여기에 휘말려들어 쓴맛을 본 나라와 민족들이 겪고있는 민족분쟁과 참화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민족의 우수성을 잘 살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자면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애착심과 자부심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사상정신상태이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일수록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민족의 존엄을 대를 이어 높이 떨치려는 각오와 의지가 높아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정치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끄떡없이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귀중한 모든것을 지켜내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는것은 결코 멋이나 부리고 만족감이나 고취하자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민족의 넋과 기상,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민족의 앞날을 훌륭히 개척해나가자는데 있다.

민족적자존심을 가질 때에만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우수성을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또한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강국건설과 민족의 부강번영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담보이며 그에 대한 지향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이다.

매개 민족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할 때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지만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덕을 바란다면 언제가도 자기 민족을 문명하고 발전된 민족으로 만들수 없다.

당면한 난관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국들에 비굴하게 양보하고 자기의 정치적주장을 굽히는것보다 더 어리석은짓은 없다. 민족적자존심을 한번 굽히면 더 큰 강도적요구를 감수하게 되고 나중에는 망국노의 신세를 면할수 없게 된다. 국력경쟁의 시대인 오늘날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없으면 국력에서 남에게 뒤지기 마련이고 민족의 부강번영에 대하여 기대할수조차 없게 된다. 특히 경제와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적요인으로, 나라와 민족들의 국력평가에서 중요한 징표로 되는 과학기술도 민족적자존심이 없으면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적자존심에는 자기 민족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애국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민족적자존심이 있어야 남보다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지 않고 남보다 앞섰다고 하여 자만하지 않으며 남보다 더 빨리 내달려 앞서나가겠다는 분발심이 솟구치게 되며 자기 식대로 새롭고 발전적인것을 창조하는 지혜와 재능이 분출된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리승기, 계응상과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 천재적인 두뇌에 앞서 높은 민족적자존심의 소유자들이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과학기술발전에서 민족적자존심이 노는 역할을 충분히 알수 있다.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참다운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으면 나라와 민족은 강해지고 끊임없는 융성번영의 길을 걷게 된다.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강한 민족적자존심만 있으면 대국에 눌리우지 않고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다는것 이것이 민족들의 흥망성쇠의 력사가 확증하여준 진리이다.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며 우리 인민은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비상한 자각과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눌리우지 않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폭풍같이 내달려 이 땅우에 그 어떤 원썩도 감히 건드릴수 없고 그 누구도 숙불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로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민족적자존심, 민족자주